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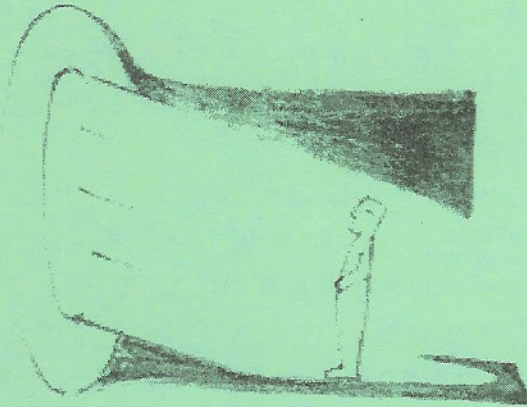


#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 27주일(복주기도 성월)  
 제27권 45호 (다해) 2007·10·7

## [묵상]



### 겨자씨

나는 한 알의 겨자씨

푸른 숲으로 자라고 싶고

뿌리째 뽑혀서도

당신의 바다에 뿌리내리고 싶은

삶의 뽕나무

◆ 한광구 요셉 · 시인 / 최창원 니콜라오 · 화가

##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불 돕는 연락처) : (310)962-8414  
 연령회 (장애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목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금요일	평일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주일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 주간 행사들

화요일	신앙학교 제4단계(종강)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전 10:3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 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떼제기도모임(2째주 토요일)	오후 6:00 오후 5:00 오후 8:30
주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베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 오세원 아타나시오 (310)327-803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 김금란 수산나, 허말봉, 윤영인 안나
	(생) 최석원 안드레아와 태훈 아오스딩 성대릭 시몬, 엘리사벳, 로렌스 노천수 프란치스코, 박상대 마르코 신부님
주 일 아침미사	(연) 김금란 수산나, 이현호 요한, 김인영 베드로 이영자 마리아, 신임순, 최복덕 마리아, 윤영인 안나 김정재 안젤라, 박기순, 이규형 곤잘레스, 이숙자 수산나
	(생) 박재훈 제임스와 박토니 가정, 이종민 오셉 엄은섭과 도로테아 가정, 장숙환 수산나, 이동준 바오로 최옥희+호경진+김정화 소화 데레사, 최양숙 안젤라 김경민 스테파노, 한창운 프란치스코, 조지 가보라 한영관 켈라, 이종원 베드로와 아네스 가정 유지원 엘리스 아기, 최 안드레아와 아오스딩 김우용 시몬과 문선 미리암 가정, 이의남 시몬 성령기도회 회원들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하바국 예언서 (Habakkuk) 1,2-3;2,2-4
화답송	◎주님의 목소리를 오늘 듣게 되거든 너희 마음을 무디게 가지지말라.  ○어서와 하느님께 노래를 부르세. 구원의 바위앞에 목청 돋우세. 송가를 부르며 주님앞에 나아가세. 노랫가락 드높이 주님을 부르세.◎  ○어서와 앞드러서 조배 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앞에 무릎을 꿇세. 당신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네. 우리는 그 목장의 백성이로세.◎  ○주님의 목소리를 오늘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무디게 말라. 너희 조상이 나를 시험하고 내일을 보고도 시험하려했네.◎
제 2독서	티모테오 2서 (2 Timothy) 1,6-8.13-14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머물러 계시다. 바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전해진 복음이다.◎
복 음	루카 (Luke) 17,5-10
영성체송	주님을 바라는 이에게, 주님을 찾는 영혼에게 주님은 좋으신 분이시로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218	323
봉헌	269	230,247
성체	409	281,299
파견	383	195

5. 성경이란 무엇인가?

▶하느님 계시의 두 원천

천주교는 성경(聖經)과 성전(聖傳)을 똑같이 하느님 계시의 원천으로 삼고 있다. 성경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이며, 성전은 기록한 전통이라는 뜻인데,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위탁하신 하느님의 말씀이다. 성경과 성전은 서로 밀접히 연결돼 있고 공통되는 바가 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하느님의 똑같은 샘에서 흘러나와 하나를 이루며, 같은 목적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만으론 교회가 모든 계시에 대한 확실성을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똑같은 열성과 경외심으로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한다.

▶성경

성경, 또는 성서는 문자 그대로 '기록한 책', 곧 '하느님께서 당신을 인간에게 드러내시는 책' (계시의 책)으로서 '인간에 대한 구원과 사랑의 약속을 담은 책'이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 (요한 20,31)이다. 그러므로 성경의 내용은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상호 관계,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말씀과 행적을 통한 가르침 등을 담고 있다. 성경은 한 권의 책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한데 모아 놓은 '전집' (叢集)이라고 할 수 있으며 크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으로 나눈다. 성경은 기원전 10세기부터 기원 후 1세기까지 천 년 이상에 걸쳐 기록되었다. 성경은 비록 인간의 손으로 쓰인 책이지만 하느님께서 인간의 지성과 의지를 움직이시어 당신께 대한 신앙을 바탕으로 쓰게 하신 기록한 책이다. 성경을 사람들이 썼다 할지라도 성경의 원저자는 하느님이시다. 성경 저자들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여러 가지 문학적 형식을 이용하여 인간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구약성경

구약성경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이루셨던 인간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하느님께서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자신의 모상을 닮게 지어내셨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우주만물을 지배하게 하셨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에게 선물로 주어진 권력과 자유를 남용해 하느님처럼 되려는 죄악을 저지른다. 죄악을 저지른 인간에게 죽음과 멸망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느님께서 먼저 한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바로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었던 이집트 탈출, 곧 민족 해방을 하느님의 결정적인 도움으로 이룰 수 있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셨는데, 그것은 "나는 너희 가운데 살며 너희 하느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레위 26,12) 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만을 믿고 따라야 할 하느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계약을 옛 계약, 곧 구약(舊約)이라고 한다. ◆(계속 - CBCK 제공)



##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확신

며칠 전 택배로 고구마 한 상자를 받았습니다. 주소를 보니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송정리 땅 끝 아름다운 교회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지도상으로는 우리나라 땅 끝에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 곳에 사시는 크리스티나 자매님이 보내 준 것입니다. 그 고구마 상자에는 가슴 저린 사연이 있습니다.

작년 늦가을에 엘리사벳 자매님으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형부가 폐암으로 위독하니 정신이 맑을 때 세례성사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형부가 성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자매님이 평소에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서둘러서 병원에 도착해서 보니 엘리사벳 자매님의 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천주교 신자가 되겠다고 자신의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교리를 간략하게 가르치고 믿음을 확인한 다음에 세례명을 요셉으로 하고 세례성사를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 병세가 더욱 더 악화된 요셉 형제에게 병자성사를 주었습니다.

그 때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시라고 했더니 “한평생 나와 함께 살아 준 아내에게 정말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시면서 하염없이 우셨습니다. 그 말씀에 아내와 자식들도 모두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요셉 형제님은 평화롭게 주님 품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 후로 요셉 형제의 믿음을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와 아들이 세례를 받고 성당에 열심히 다닌다는 소식을 엘리사벳 자매님에게서 들었습니다. 고구마 상자는 온 가족이 천주교 신자가 된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표

시로 요셉 형제의 만딸인 크리스티나 자매님이 보낸 것입니다.

오늘 복음(루카 17,5-10)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믿음을 더해 달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무화과 나무더러 ‘뽕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는 네 가지 눈이 있다고 합니다. 사물을 보는 육안, 지혜를 터득하여 가지는 지안, 마음으로 보는 심안, 그리고 하느님을 믿고 영원한 세상을 보는 영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천주교 신자에게 가장 필요한 눈은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영적인 눈’입니다. 이 영적인 눈은 우리가 지닌 믿음의 양에 따라,

믿음의 질에 따라 하느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고, 이 믿음에 대한 보상은 우리가 믿은 것을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느님께 나아가면(히브 10,22)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마련되었음을, 따라서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음을 깨달을 때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히브 11,3).

● 정원순 토마스 데아퀴노 수사신부  
 <지극히거룩한구속주회>

### 이번주 전례 봉사자

### 다음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 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이번 주	토요 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강정현 시몬	이호미 엘리사벳	이진향 아네스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신덕례 대래사	최진수 에우세비오
제1독서자	최태훈 아오스딩	김교복 래오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1독서자	민슬기 로사리아	최영신 프란치스코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박지혜 수산나	변혜경 올리아나	박희자 마리아	제2독서자	이성연 크리스티나	황지영 안젤라	김정심 크리스티나
제물봉헌자			P.V. 2반	제물봉헌자			토런스 1.4반







축하합니다.

종신부제직을 공부하고 있는 최영신 프란치스코 형제님이 지난 9월29일(토) LA대교구로부터 시종직을 수여 받았습니다. 시종직은 복음말씀 선포와 제대위에서의 전례 중 사제를 도와 사제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직위를 말합니다.

백삼위 골프회 10월 정기 토너먼트

- 일시: 10월20일(토), 오전 10시 티오프
  - 장소: 엘도라도 팍 골프 코스
  - 크리스 리 형제가 상품 3종 기증
- ☎ 310-569-3940(최기남 야고보 백삼위 골프회장)

친교자리(주일 점심 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10월7일: 사회복지분과 (샌드위치 \$3)
- 10월14일: 하버/카슨 1반 (콩치백반 \$3)

남가주 소식

가톨릭방송 주관 풍선아트 무료 강좌

- 매달 마지막 목요일에 테마별로 강좌합니다.
- 10월25일: 기초강좌와 추수감사절
  - 11월29일: 기초강좌와 크리스마스
  - 12월27일: 기초강좌와 뉴이어(새해)
- 장소: 성 아그네스성당 한인회관
- 신청 및 문의: 미주 가톨릭방송 ☎ 213-385-5564
- \*재료비는 본인 부담

2007년 가을 "선남선녀 만남의 장" 제 4기

- 전문가들의 레크리에이션 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런 만남이 되도록 재미있게 진행합니다.
- 일시: 11월9일(금)~11일(주일)
  - 장소: 테메쿨라 꽃동네 피정의 집
  - 신청자격: 26~39세 미혼남녀, 가톨릭교회 안에서 혼인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남녀신자 각 20명
  - 참가비: 숙식포함 \$250
  - 신청 및 문의: 미주 가톨릭방송 ☎ 213-385-5564

제 26회 추수감사절 합동 야외미사 및 2부행사

- 일시: 11월22일(목) 오전 10시, 엘도라도 팍
  - 미사 주제: "온갖 좋은 일을 행하여 열매를 맺으며..."
  - 2부행사: 각 본당 대항 가장행렬과 줄다리기
- 신청마감: 10월30일(화) Fax 818-242-4322
- 주관: 성 마태오 한인천주교회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장/반장 회의	오후 1시
-----------	-------

다음 주 단체 모임

각 단체 모임의 날	오전9시, 오후 1시
------------	-------------

소공동체 부장	권순길 세실리아 (310)365-2183		
차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차장	권병연 리디아 (310)938-3255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김양금 안나 518-3041	김중환 야고보 562-628-1955 10/12(금) 오후 7시30분
	2	신중철 아브라함 949-679-4321	김정용 요한 619-4343 10/13(토) 오후 6시
	3	한길선레 스텔라스티카 782-1025	한길선레 스텔라스티카 782-1025 10/12(금) 오후7시30분, 성당
	4	정종미 클라라 373-1237	정종미 클라라 539-3396 10/12(금) 오후 7시30분, 성당
토런스 서 김숙희 오틸리아 782-8549	1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김대우 비오 378-8763 10/20(토) 오후 7시
	2	이명순크리스티나 374-1572	박재철 요한&로사 530-3699 10/7(주일), 11시 미사 후
	3	김미성 미리암 798-6540	박명순 안나 750-0540 10/9(화) 오전 10시30분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김씨니 클라라 612-8840	1	신성주 엘리사벳 891-1837	신성주 엘리사벳 891-1837
	2	임진희 한나 720-7898	박희자 마리아 791-3703 10/9(화) 오전 10시30분
	3	임형미 사비나 325-6810	박래경 헬리카 972-1616 10/12(금) 오후 7시30분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1/2	박정희 마리아 715-2609	최펠릭스&차안드레아 10/12(금) 오후 7시30분, 성당
	3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하버 카슨 박혜경 레나타 808-5005	1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최경애 프란치스카 908-5544 10/21(주일) 오후 6시
	2	김희복 아메스 326-2283	박종열 토마스 아퀴나스 784-0460 10/13(토) 오후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1794	1	홍정란 클라라 544-6290	유도미니코&도미니카 714-680-4963, 10/12(금) 오후 7시30분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국세마스찬&안젤라 541-7644 10/19(금) 오후 7시30분
	3	윤은경 미카엘라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10/19(금) 오후 7시
	4	송기순 엘리사벳	이귀란 아네스 377-6752 10/17(수) 오전 10시30분



## 종에게도 믿음이 있어야 ...

판도라의 상자 안에 남아 있었던 것은 오직 '희망' 뿐이었다. 희망은 무엇인가? 희망을 곧 미래의 것에 대한 바램이며, 바램은 믿음을 전제한다. 믿음 없이는 아무 것도 바랄 수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며" (2코린 5,7), 누구든지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로마 10,9)고 가르쳤다. 그보다 먼저 제자들은 어떠했는가? 예수님의 요구에 따라 가진 재산은 물론 가족들과 자기 목숨까지 버릴 각오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은 내렸지만 그 결단에 수행되어야 마음과 몸이 턱없이 부족했다. 사도들에게 스승의 요구는 한 마디로 감당하기에 벅찼던 것이다. 그래서 사도들은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5절) 하며 자신들의 부족한 믿음을 고백하고, 아울러 '믿음을 더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더해 달라는 말은 믿음의 기본은 이미 있다는 말인데, 예수님의 대답은 완전히 뜻밖이다. 예수께서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돌무화과나무더러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그대고 심겨라' 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고 하셨다. 이와 비슷한 대목에서 마태오는 겨자씨 한 알의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마태 17,20)고 했고, 마르코는 의심 없는 믿음으로 산을 바다에 통째로 빠뜨릴 수 있다(마르 11,23)고 했다. 무슨 말인가? 결국 사도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다는 말이 아닌가 말이다. 겨자씨는 씨앗 가운데서 가장 작은 씨앗이며, 돌무화과나무는 그 뿌리가 깊어서 거센 바람에도 뿌리 뽑히지 않고 수백 년을 견딜 수 있다는 나무이다. 그렇다고 2,000년의 교회역사 안에서 나무를 뽑아 바다에 심고, 산을 옮기거나 바다에 빠뜨린 믿음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었다. 결론은 제자들이 부족하나마 가진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도 안 된다는 것이다. 왜 그런 것일까?

이유는 사도들 스스로의 편에서 찾아야 한다. 그들의 믿음은 대가를 바라는 믿음이었기 때문이다. 믿음에는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 믿음은 철저하게 하느님의 선물임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가진 그만큼 믿음으로 무언가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서로 윗자리 다툼을 하며(마르 9,33; 마태 18,1; 루카 9,46), 베드로도 나서서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무엇을 받게 되겠습니까?" (마태 19,27) 하며 믿음에 대한 대가를 던지시 요구하기도 하지 않았는가 말이다.

하느님과 예수께 대한 올바른 믿음의 자세는 오늘 복음의 두 번째 내용인 '종의 의무에 관한 비유'에 비추어 볼 수 있겠다. 오늘날 보수 없이는 아무 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사회적 구조 속에서 '종의 신분'에 관하여 논한다는 것은 전근대적인 발상으로 치부(置簿)될 지도 모른다. 굳이 논한다면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알아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종의 신분이 법적으로 인정되던 시절로 돌아간다면 오늘 비유는 쉽게 이해된다. 품꾼이 보수를 요구하는 일은 당연하지만 종은 무상(無償)으로 일해야 한다. 종은 주인의 법적인 소유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종의 의무에 관한 비유를 들려주시는 것일까? 앞서간 부정직한 청지기의 비유와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대한 예수님의 말씀(16,1-15)에서 보았듯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율법을 잘 준수한 대가로 넉넉한 생활을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율법준수가 재물을 보상으로 줬다는 말이다. 그들은 이렇게 인과응보(因果應報)의 사상에 깊이 젖어있었던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사람을 주인이신 하느님에 대한 종의 신분으로 설정하신다.

인간이 하느님의 종이라면, 인간은 하느님께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어떤 보상도 요구할 수 없다. 반대로 하느님만이 인간에게 온전한 섬김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이다.(루카 6,13; 마태 6,24) 하느님께 대한 그리스도인의 믿음도 바로 이런 관계에 있다. 예수님도 '파견된 자'로서 '파견하신' 아버지와의 관계를 철저한 '종의 신분' 관계로 이해했다. 이 이해는 곧 아들의 아버지께 대한 믿음이다. 그래서 하느님이신 예수님도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던 것이다.(필리 2,7) 결국 예수께서는 종의 신분으로 종들인 인간을 죄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자유를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 자유를 선물로 받은 셈이다. 우리는 선사된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하느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이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10절) 하며 사는 것이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아니겠는가.

◆ 박상대 신부